

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어떻게 책임지는가



HDC 봉사단에서 왔습니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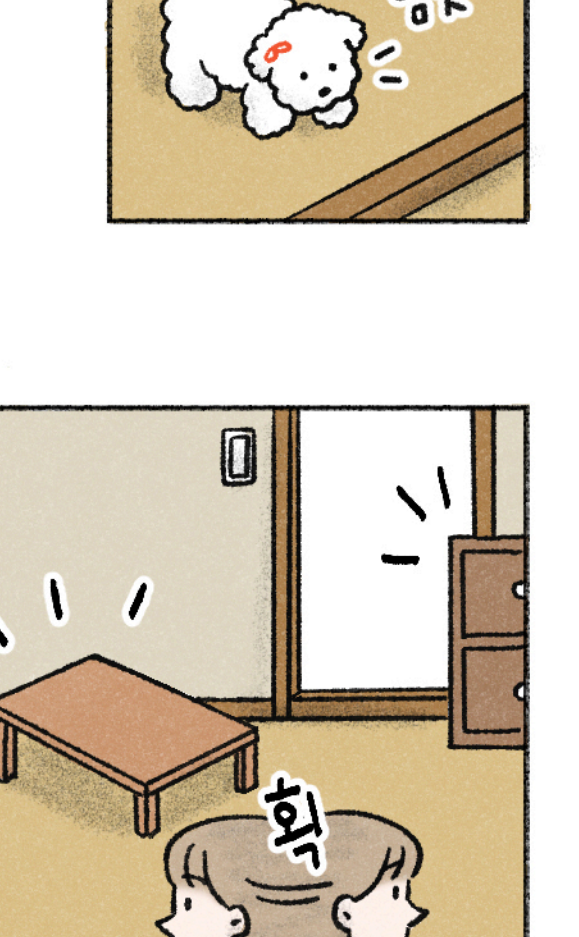
어서 오세요...



곰팡이가 살 수 밖에 없는
환경이군요. 습도가...



그건 습도계 일기도 눈에 보이잖아요.
거기서 그렇게 민감하지 말고,
열린 와서 이거나 들어요!



아, 실례했습니다.



우와,
속이 다 시원하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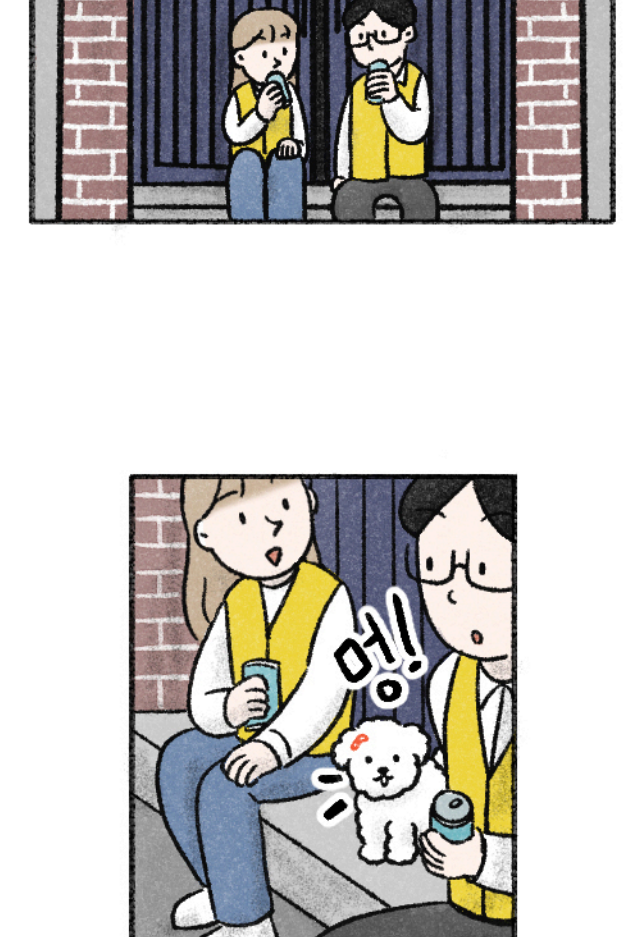


매니저님, 곰팡이는 고쳤는데
할머니가 매일 다니시기엔
여전히 위험해 보여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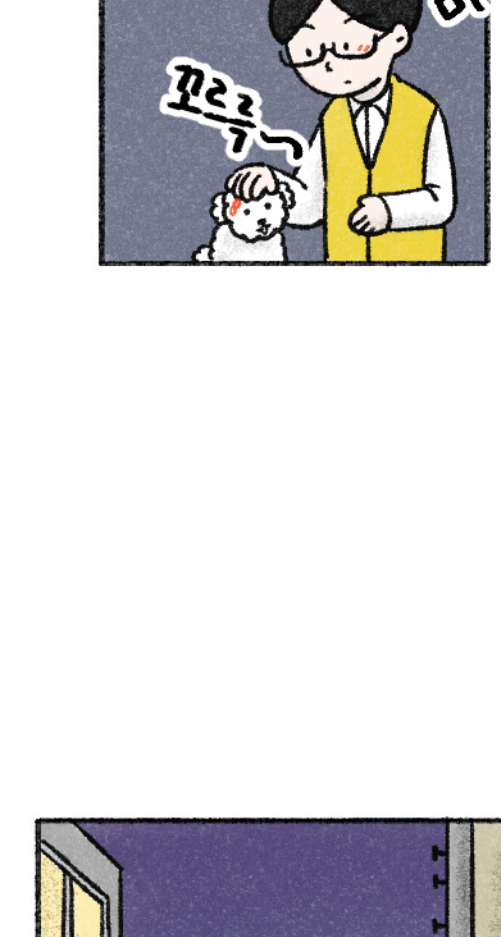


음... 그러네요.
할머니의 보폭과 생활 패턴,
활동 시간 등을 고려해 편하게
사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.

문턱, 조명, 가구 위치를 고쳐 보죠.



이제 복수라도 마음 놓고
뛰어다닐 수 있겠네~



곰팡이 없애는 것보다
더 중요한 걸 배웠네요.

